

민주 “이상민 ‘유쾌한 결별’ 발언 분열 조장” 엄중 경고

언론 인터뷰서 분당 주장 반복...총선 앞 계파 갈등 촉발 가능성 지도부 “명백한 해당 행위” 당헌·당규 따라 징계 가능성 시사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2일 5선 중진인 이상민 의원의 최근 ‘분당(分黨)’ 발언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해당 행위로 간주하고 엄중 경고하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이상민 의원의 발언 논란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부의 친명-비명 진영간의 충돌을 촉발시킬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상민 의원의 언론 인터뷰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는 이야기가 지도부에서 나

왔다”며 “오늘 회의에서 지도부 모든 분과 최고위원들은 (이 의원의 분당 발언이) 명백한 해당 행위이니 경고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 대표도 강하게 말했으며, 반대 의견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이 의원이 분당 언급을 이어갈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징계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당내 일각에서는 이 의원의 발언이 당내 주류세력의 일방통행을 견제하기 위한 쓴 소리 성

격이 강한 것 아니냐며 지도부가 보다 폭넓게 포용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강성 비명(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이 의원은 지난 3일 언론 인터뷰에서 “유쾌한 결별도 각오해야 한다”며 분당론을 꺼냈다. 이 의원은 이날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가야 할 방향이 다르고 어떠한 공통 기반도 없는데 그냥 거대 정당의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한 지붕 위에 같이 있으면 매일 허구한 날 지지고 부고 자리싸움, 권력 싸움이나 할 바에는 유쾌하게 결별할 각오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시각을 달리해서 보면 ‘분열은 나쁜 것이고 통합은 선’이라는 고정된 프레임은 극복해야 한다”며 “쿨하게 유쾌하게 결별하고 선의의 경

쟁, 정치적 서비스의 품질 경쟁을 해서 1, 2당이 되면 되지 않겠는가. 국민의힘은 3당이 되게 하고”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진행자가 ‘유쾌한 결별이 되려면 재원이 해결돼야 한다. (교섭단체 구성 의견인) 20명 이상이 모여야 하는데 가능하다고 보느냐’고 묻자 “상황에 따라서(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은 당 지도부의 경고 결정 소식이 알려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해당 행위를 했음을 이유로 경고를 운운했다고 하는데 황당하다”며 “저는 전혀 해당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당 지도부 등을 포함해 당내에 있어서 민심에 반하고 당에 해를 입히는 행태에 대해 성찰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명과 비명간의 전초전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이 의원이 지도부의 경고에 반발하고 강한 발언을 이어나가면서 징계가 현실화된다면 판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반적인 당 내 분위기는 이 의원의 발언이 좀 심했다는 분위기여서 문제가 더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당내 핵심 관계자는 “이 의원의 발언이 너무 멀리 나갔다는 것이 당내 전반적인 평가”라면서도 “하지만, 지도부가 경고 결정을 내린 것은 당의 결집을 위해 그리 좋아보이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당 사무실에서 최고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권 노동탄압 한국노총과 연대”

정책협의회 개최...“5인미만 사업장 노동권 강화 등 법제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2일 “정권의 노동탄압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맹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의) 반노동적 행태가 노동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 국면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무차별적 ‘컨폭물’로 양화동 열사가 희생되고, 생존권 보장을 요구한 노동자를 향해 정권은 폭력 진압으로 대응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주 69시간제’에 대한 미련도

여전히 버리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지금까지 태도로 보아 주권자이기도 한 노동자를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며 “오직 초부자, 초대기업만을 위한 정책 수립에 목을 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노동탄압, 노동개악 폭주에 맞서 한노총과의 연대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올 하반기 국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 기본권 강화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성과를 반드시 내도록 하겠다”며 “특히 노동자의 합법 파업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노란봉투법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뉴스

여야 11인 원로회 출범

여야 정치 원로들이 양극단으로 흐르는 현 정치 상황을 바로잡는 데 역할을 하겠다고 나섰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신영균 상임고문과 더불어민주당 권노갑 상임고문이 주축이 된 원로회가 제75회 제헌절인 오는 17일 공식 출범한다.

원로회에는 두 상임고문 외에 강창희 김원기 김형오 문희상 박희태 임재정 정세균 정의화 전 국회의장 등 8명의 전직 국회의장과 정대철 대한민국 헌정회장까지 총 11명이 함께한다.

이들 중 일부는 지난달 30일 정대철 헌정회장의 개인 사무실에 모여 ‘11인 원로회(가칭)’의 공식 출범을 준비하는 사전 모임을 했다.

이 자리에서 원로들은 “여야의 극단 정치를 끊어내자”고 뜻을 모았다고 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민형배 “광주에 희생법원 설치해 달라”

서경환 대법관 후보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 민형배(광산) 국회의원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원의 사건처리 지연 개선을 강조했다. 또 희생사건은 빠른 처리가 핵심이며, 이를 통해 피해자 구제 속도를 높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광주에 희생법원이 없어 시간이 2배 이상 소요된다는, 서경환 대법관 후보자에게 광주광역시 희생법원 설치 의견을 물었고, 이에 서 후보자는 “적극 찬성이다”고 답했다.

서 후보자는 “국민들이 (사건처리 속도의 지역별) 편차가 심해 주소를 옮겨서 신청한다고 한다. 편차 해소와 신속한 도산재판을 위해 희생전문법원이 만들어지는 게 좋겠다”고 답변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입법은 저희들이 할테니 대법관이 되시면 대법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져달라” 당부했고, 서 후보자는 “적극 지원할 생각이 다”고 화답했다.

민형배 의원은 지난달 27일 광주와 대전에 희생법원을 설치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제 악화로 개인과 기업의 회생·파산 신청이 늘었지만 사건 처리기간이 급격히 늘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최소 고등법원 소재지에는 희생법원을 확대 설치하자는 취지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 개선안 논의

강은미 의원 국회서 토론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공공운수노조와 공동으로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 제42간담회실에서 ‘돌봄노동자 건강 실태조사 발표 및 돌봄노동자 건강권 보장 제도개선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현장의 다양한 돌봄노동자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노동자, 보육교사,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을 비롯해 노무사, 변호사, 정부관계자 등이 참석해 돌봄노동자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강은미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서 “돌봄 노동자는 건강권을 위협받고 있지만,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도 마음껏 쉬 수 없는 노동조건 속에 있다”면서 “돌봄노동자의 인권은 서비스 이용자의 인권과도 밀



접한 연관있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확보와 돌봄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일선 돌봄현장에서 노동하는 돌봄노동자들의 생생한 현장증언이 이어졌다.

한편 526명의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진행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된 발제에서는 응답자의 18.8%가 산업재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장에 유급병가를 시행한다는 응답은 49.4%에 불과했다. 돌봄노동이 서비스 이용자와 함께 하는 노동이니 만큼 서비스 대상자로부터의 폭언폭행 경험은 47%나 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봄에 떠나는 그라운드를 섬여행

녹동-거문도 1시간20분

거문도+백도

광주-녹동항 셔틀 주말 확정 / 평일, 20명 이상 출발

당일투어 1인 13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중식 1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1박2일 투어 1인 214,000원~

광주-녹동항 왕복 셔틀버스 포함
녹동항 출발 왕복 쾌속선, 백도 유람선 관광
민박(4인1실) 1박, 식사 3회
서도→거문항 수송 1회 포함

※상기 여행요금은 평일 출발 기준 요금이며, 주말 출발시에는 요금이 인상됩니다. 광주-녹동항 셔틀버스는 기상 및 회사 사정에 따라 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후원: 삼도해운, 플래티늄 | 승선문의: 061-834-3434 | 예약센터: 062-385-0515 | 투어나우: 062-575-801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